

회사원문

영인프런티어, 과학자문위원 영입으로 신약개발사업 본격 시동

<2020-01-15> 영인프런티어(036180, 대표이사 김준성,신용주)는 KAIST 전상용 교수를 비롯하여 신약개발사업과 관련된 생명과학 각 분야 최고의 과학자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회사가 영입한 자문진은 전상용 교수외에 서울대 정종경 교수, 연세대 이한웅 교수, 서울대 권용태 교수, 울산대 나도선 교수 등이다. 이들은 국내 생명과학 각분야를 대표하는 과학자들로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상용 교수는 Nano DDS(약물전달시스템)분야를 선도하고 있어 신약물질의 효과적인 투입방법 모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경 교수는 세포신호 전달체계 해석 및 면역학적 기전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한웅 교수는 동물유전자 전환분야의 대가로 항체생산 생물학적제제 의약품개발에 기여가 예상된다. 권용태 교수는 신약물질에 의해 조절되는 시그널 단백질, AutoTac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과정에 자문할 예정이다. 이밖에 나도선 교수는 우리나라 생명과학계의 대모로 신약개발 전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인프런티어는 이번 자문위원 영입 외에도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국립암센터장인 이토 교수와 미국 Mayo 클리닉의 안드레아즈 박사 등 해외 톱클래스 연구진들의 자문위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인프런티어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 영입은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걸쳐 최고의 과학자들이 결합되어 있다” 며 “역할 또한 단순한 과학적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의 개발, 임상, 사후검증 전분야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어서 신약개발의 기간단축과 전략 수립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참고자료

성명	소속	주요경력
전상용	KAIST	미국 의생명공학원 (AIMBE) 펠로우
정종경	서울대	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 연구원 하버드 의대 조교수
이한웅	연세대	연세대 실험동물연구센터 센터장
권용태	서울대	서울대 의대 단백질연구센터장 피츠버그 의대 종신교수
나도선	울산대	UN생명공학구상 위원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전략분과 자문위원 한림원 이사